

20  
23

5



박 영 빈 선생.

박 영 빈 선생은 1907년 7월 31일에 원동  
 변강 수창구역 시영등에서 탄생하시었다. 박 선생의  
 말년에 의하면 선생의 부친은 상식이 아주 방불한  
 지식인이었으나 서자였기때문에 과거에 린접못하여  
 전선당에서 어디에서인지 어떤 벼를이던 할수없었다.  
 때문에 자기 상식에 대한 니막을 감혹하고 중국을 걸려  
 서포령지 변보시흥구역에 도착하여 인민학교 교원노릇  
 을 하시다가 수창구역 시영등에 가서 동원생활을 하시었  
 다. 선생은 교원생활에서 금실한 경제 곤란을 겪었기때

물에 시영중에 어두워져 오신 이후에는 투석한능원으로  
 가람하시고, 결집에서 읽을수없는 편지를 받으신, 품  
 읽어달라고 하시면- 나는 읽을수없으니 저편너겔 김선  
 달보고 읽어 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상식하고는 패인  
 사난 박선생의 복원은 아들로 학교에 보내지 않아  
 박선생은 14세에 인민학교에 갈수없었다. 박선생  
 의 복원은 그대로 양반의 귀이라고 박선생은 14세  
 에 장가를 보내셨던와 그의 색씨는 그대에 17세였다.  
 벌써 15세 되었는데 박선생은 장남을 보게되며 품  
 아이들에게 - 아, 그아이라 네아이 아닌 다란 놀림까  
 지 받게되었다. 박선생은 늦게 14세에 인민학교에 가  
 게 되었으나 집에서 형에게서 자습북 하였으며 책 들은 많  
 이 읽은 덕분에 5년동안 공부할 대신에 일년만에  
 인민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 1924년에 박선생이  
 인민학교를 필하는 해에 복원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다음  
 해에 아이로 죽었다. 박선생은 1924년에 초중에 입  
 학하여 1926년에 필한다음 동년에 소왕령에 있는  
 한인 사전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한인 사전이  
 라로 있지 않고 러시아 사전에 한인 학부가 없었다  
 한인 학부에서 4년 공부하여야 되었으나 박선생  
 은 3년 동안에 4년 공부할 강령을 무용하게 완결하고  
 1929년에 사전을 필하였다. 사전 졸업후 원동변강  
 교육부의 배정에 의하여 박선생은 북화태극 나무로까지  
 논으로 파견리게 되었다. 박선생의 말년에 의화천 화  
 태극에는 나팔관악소크 강아루르 강으로 배하고 간다  
 음에, 그다음에는 작은 발공선이 절인하는 큰 나무배에 앉아  
 화태극까지 가게 되었으나, 도중에 큰 배를 만나 하류  
 갈을 10일간 고생하며, 품이면서 화태극까지 가서도

또 거기에서 30 킬로 메트 되는 나무뿤까 어장촌  
 까지 가게 되었다. 당시 1929년에는 이곳에는 어떠한  
 마차로, 자동차로 다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등까  
 지 보비는 모래밭길로 3일간에야 통과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 나무뿤까 어장촌에 도착하여 보니  
 전체 약 200호 가족이 사는촌에 한인은 약 20호라  
 가족이 살고 한인 학교에는 학생 모두가 17명이 공부  
 하였다. 전체 4학급에 1개 학급에는 4-5명 학생이  
 출석하였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원종에너의 공립 전  
 생에게 의회구권을 위하여 투쟁한 한인 가족들이 살  
 면서 고기잡어하는 협동조합에서 일하였다. 목적지 학교  
 에서는 교원 한명이 벌써 4학급을 가르치는 교원이 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교원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교원으  
 로, 자기가 겨우 일인학교 상식으로 아이들에게 질적 교  
 육을 줄수 없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설악산 박선생은  
 이 추운 가운데 이제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서 2명이  
 같이 일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가 겨우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함을 자각하고 별말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였다. 박선생은 이곳에서 오래동안 일하지 않았지만  
 그의 활동은 아동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시 일민들  
 에게는 아무런 문화교양도 제공한 수권에서, 실용강독강  
 의, 지어는 각분까지 꾸며가지고 연극도 놀았으며, 때  
 로는 자기도 여타까지 역을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얼마 더러지지 않은곳에 오하라 도시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온-일 원류채취 회사가 있었으며, 거기에  
 복은 많은 한인들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에게  
 한한 문화교양사업이 아주 필요하였다. 박형빈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여 대에 근공촌에서의 문화예술행사로 조직  
 지르 한 결과 노월 세대까지로 노래를 개관하시였다.

박영빈 선생은 이렇게 공청회와 결으로 러나면 북화해  
 에 가서 열성적으로 활동한 공으로 1931년에는 박선생  
 을 레닌그라드 국립 사범대학 철학부 경영 사대에서  
 1931년 복학 공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대 역사-철학  
 부에서 공부하다가 1932년 복학은 수학과 물리학 부에서  
 공부하시었다. 박영빈 선생은 생각하시기를 러시아 철학은  
 상식이 없으면 해만 읽으면 될터인데 이런곳에 와서  
 공부할바 저고름한 상식으로 공부하겠다는 견해에서 수물  
 과에 전학하였다. 이것은 박선생의 명철한 타산이었다.  
 우선 노동하는 상식에서로 그러하였지만 차츰 보다 리적인  
 압사대에 있어서 박선생이 공회가였어면 더 두말할 필요  
 도 없어 한알 당하였을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박선생이 철  
 학적면에서 복습한 간부는 아니었다. 정반대로 박선생은  
 일생을 유능한 정치가로서 항상 지리적 지위에서 일하시었  
 다. 레닌그라드 사대 학생으로 있으면서도 일일이 지나가  
 박선생은 함무당위원회와 대학당위원회 위원으로 계시  
 려서 대학생 군중회에서 청년회 사업, 직병 사업 등으로  
 주 열성적으로 조직 지르하였다. 이 외에 박선생은 레닌그  
 라드에서 공부하시면서 대학 법외 부에서도 상회 군중  
 사업에, 특별히 한민 군중들 속에서 당시하기 적절한  
 사업들을 조직 진행하였어바 이시기에 레닌그라드 시  
 에는 "동양인민회관이란" 단체가 없었다. 이 동양회관  
 내에는 "교련인 농촌 협회"란 단체가 있었다. 이러한  
 단체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않았다.  
 박선생은 대학 일학년에서 공부하는 동안 동양인민회관  
 에 몇번 찾아가 보았으나 그의 조직사업, 특히 한민협회  
 사업이 전혀 눈에 보이지않아 한번은 레닌그라드 시 인민

5.  
위원회에 찾아갔었다. 거기에서 박선생은 이전에 원동  
에서 한인사건을 조직하시고 거기서 초대 교장으로 사임  
하시던 한영제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한영제 선생은  
시원반 위원회 내에서 극로 세번쯤 관계 문제를 풀고 지르  
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인 향토 협회" 사업  
이 잘리지 않아서 고민중에 박영빈 선생을 만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었다. 한단의 큰비난임을 회자한  
영제 선생은 레닌그라드 시내에 살고있는 전세 한인들을  
동양연속회관에 초청하였다. 그렇니 레닌그라드 시내도  
그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은 불과 몇몇에 지나지 않고 그 외에  
전북도 대학생들이었다. 한인 향토 협회 총회에서는 단한  
한가지 문제 - 협회 사업 활성화와 협회 지도 분부 선지였  
다. 협회 총회에서 아주 사업을 리약하게 진행한 북은지  
부를 비판하고 새 지도부 선거에서 박영빈 선생을 위  
원장으로 선거 한다는 위원장과 사기장을 선거 하였다.  
그후 한영제 선생은 협회 사업 계획을 장성하는 방향으로  
어떤 어떤 문제들은 포함하여야 하니까 또 어떠한 날자  
들을 리용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등 문제들은 가로써  
주었다. 그 선생의 지도하에 박선생은 자기 사업 계획에 -  
원동에서 발간되고 있는 한인 신문 "선봉신문"을 대폭  
정구하여 내용을 풍부하는 동시에 각 대학생들에게 배  
주하여 주며, 한인 명절과, 3.1절 같은 기념 일에는  
큰 보고 대회를 조직하고 유익한 지식인들을 리용하여  
내용이 풍부한 보고들은 조직진행하였다. 그렇시에 레닌그  
라드에는 한영제 이외에 아주 유명한 한인 박사들이 있  
었던바, 레히만 백플로르, 최글레브, 한영섭 등 선  
생들이 계시었다. 한인 협회에는 유명한 러시아 박사



레닌그라드 사대에서 유명한 박사를 일하고 있  
 다가 스타이 험으로 체포된 박리하일의 동생이  
 라고 하면서, 자기 출신을 녹이고 노왕령과 일하고  
 있다고 다짐할수록 매일 불러가곤 하였다. 박선생  
 은 그것을 전혀 묵언하여, 전지자 자기 형은 원동현강  
 물길 구역에서 형등조합 위원장 직에서 일하고 있  
 다고 하면서 다음 차츰 그곳 노베르 기관으로 복귀 형에  
 대한 확인서가 도착하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다.  
 박영빈 선생은 원동으로 복귀의 한 번 강제 이주  
 때까지 계속 사전에서 일하다가 1937년 강제  
 이주 당시에 노왕령 한인 사전과 함께 중앙시아  
 까자코 공화국 까살린스크 시에 도착하여 이주  
 이듬해로 1940년로까지 계속 사전에서 근무하  
 려하였다.



박영빈 선생의 차남 철우와 그의 아들 영래. 1945.

박영빈 선생은 1941년에 카사흐탄에서 이주하여 우리체코  
 한 안기울시에 오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약 2년간 고공무학교  
 원으로 일하시었다. 1942년 말에는 전 가족이 도교육복의 리  
 시에 따라 하뉴켄트족 공화국 구역 배타 배반 조항에 가시게 되  
 었다. 배타 배반 형등조합 내에는 한인 고공이 있었지만

박선생은 1942-1943 학년도에는 고종교구주임 겸 수학교원으로 일하시였으며, 다음 1945년 10월에 북한에 파견될때까지는 고종교구 겸 수학교원 일을 하시였다

1945년 10월 중순에 박영빈 선생은 다뉴겐즈주군 사령관부의 명령을 받고 북한에 군복으로 가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박선생은 원천사령관 조라넨코 소장의 지로하에서 북한에서의 토지 국유화 정책실현에 대한 법령 채택 및 그 실현을 위하여 개인 소유 및 지주호지들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가족부담에 따라 분배하여 그에 따라 협동조합 조직을 통해 전개하는 사업들을 조직지도 하였다. 토지 개혁을 완수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할 때위에서 1946년도 파종 계획이 완수되자 박선생은 행정사령관 조라넨코 소장과 김일성 추방의 공증 지시를 북한에 고급지도 간부들을 양성할 고급지도 간부학교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간부학교의 명칭 교장은 김일성이나 전치학교 운영 조처는 박선생이 직접장악하고 지도하였다. 고급 지도 간부학교에는 소련으로 복귀 북한에 나온 전 체 고급 일제 들도 모집하여 교원들로 임명하고 개학은 1946년 6월 1일 복학 개교하였다. 박선생은 모든 조직사업은 두었어 다 직접 김일성의 명령으로써 지시 집행하였다. 제 1회 졸업식은 1946년 9월 중순에 있었지만 그 졸업식에는 김일성 수상, 김주봉 상임위원장 최용권 민족보위상이 참가 하였으며, 소련 제 25군단 사령관 라민전 사령관도 참석하였다. 제 1회 졸업종료는 직접 김일성이 때 졸업생들에게 증명하였다.

박영빈 선생이 내각중앙지도간부학교에서공직9. 적 인정을 받으시고 교육을 지도하고 있던 1948년 8월에는 남한에서로 2백여명 대의원들이북한 들어와 있다가 전복다 내각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정부고급직무들에 배치될 받게 되었다. 이때에 백남운, 허헌 홍영희 등 여러 선생님들이 다같이 배치를 받았다.

역시 1948년로에 박영빈 선생은 소련과 미국의 주재로 서울에서 열리었던 소리 공동회의에 쓰디쓰디 대강의 보좌관으로 같이 참가하시었다 소리 공동회의에서는 조선 전역에서 소리운동은 철저히한운제를 세기 하였으나 미국의 부동의로 소련 부속 대를 쓰디쓰디 대강은, 소련은 자기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1948년 말까지 할 한도에서 철퇴 할라고, 선언하였다. 사실 그후 소련군대는북한에서 일방적으로 1948년 12월까지 철거하여나갔다. 박영빈 선생은 제복하여 1949년 말까지 내각간부학교에서 일하시다가 처음에는 교육성복상으로 전근 되었다가 1950년 말부터는 조선로동당조직부 부부장으로서 계시면서 당조직사업으로 지르하였다 다음 1953년 4월에 허가이 부의원장이 암살당한 어둡 박영빈 선생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겸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박 선생의 직무는 아주 중대 하였다. 박 선생은 당내 전체 조직사업은 책임지고 하는 한편 전체 당간부, 정부요인들의 조동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르하였다.

1954년 부터 시작된 사상검론 운동은 북한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부들은 누구할것 없이 그들의 정치적 믿음에 대하여 검열하였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소련에서 파견된 간부들로 인하여 사상검론에 흥미되지못하

고 철직, 조종, 후북 등은 유형지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박영빈 선생의 제자로써 송급, 영선진 사람도 많았다. 때문에 박영빈 선생도 역시 소련 가족주의자로 비판 받게 되었다. 이상 조건에 의하여 박영빈 선생은 1957년 5월에 당중앙위원회 조직 부장에서 철직되었던 당중앙 정치위원회 위원명단에 제명되고 대외부역성 부장직이 조종되게 되었다. 본래 말사가 드물 박영빈 선생은 비판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시고 새로 임명된 대외부역성 일을 열성적으로 조직 집행하면서 1960년 말까지 일하시었다. 본래 어려서부터 집에서 고린공음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다년간 빈천한 레닌그라드에서의 유학생 생활은 많은 악영향을 주어 50세에 넘어서 박선생에게 많은 병적 근원들을 초래하였던데 특별히 의연징병이 극심하여 때로는 침대에서 비끼를 안고 돌아오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박선생은 환경을 보아하니 이전에 소련에서 같이 북한에 나와 일하던 간부들은 권부다 귀환하는 조건하에서 소련에 귀족하여 가서 친척들의 방조로 받을 편행치들로 함께 하여 소련 정부와 북한 정부에 청원서들로 제출하였었다. 소련 정부는 1960년 말에 박선생 청원을 심의하고 이어 허락을 비준하고 조선측에 박영빈 선생의 청원에 비준하여 달라는 편지를 보내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도 박선생의 귀환을 허락하여 주어, 박선생은 1961년 3월에 모스크바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수속을 거쳐 4월 초순에 친척들이 살고있는 라투켄스에 오게 되었다. 반가운 친척들과 여러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신 박영빈 선생은 근 반년간 휴식하면서 소련 각 지역 휴양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사진은 박선생의 화남 철북과 두아들로 데리고  
안국문 배정에서 같이 찍은 사진, 1995.4.20.

박영빈 선생은 형제로는 받을 것인 조총각도 할 것 없이  
자기 옛친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모스크바, 러시아의  
알마아라 품에 들어 다니며 그동안 - 15년 동안 북한  
에 가서 조국건설에 애쓰고 일하다가 환란한 성공을  
못보고 돌아오게 된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하여 어찌  
하여 애절한 심심한 밤은 서로 난이군 하였다.  
이렇게 장시간 휴식한 다음에 박영빈 선생은 우  
르백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초청을 받아 당간부부에  
각서 가족들을 위한 사택문제, 아이들의 공부문제도  
북한의 최정문제로 해결받은 다음에 박선생은 상업  
성관하 하숙제도시 식료품관리국 산하 식료품관리  
기업소 드레브노 관리 책임자라는 벼치되어 1965  
년에 연금생으로 나라살때까지 꾸준하게 일하시었다.  
1965년 말에 연금생활에 나오신 박선생은 소련군  
으로 조선해방전쟁이 험악한 권리로 부름을 각 능양



박영빈 선생은 복판에서 선물로 보내온 회전자전거  
를 돌리면서 부인 라리야에게 설명하여 주는 장면.

노릇에 단년에서 12년 치를 받곤 하였으며 이곳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집에 단년오곤 하였다.

1990년 2월에는 모스크바 국제 북한 대서관 발동  
 서기가 하유겐호에 살고있는 현인들이 만나볼리워서  
 황성복의 사택에서 그와 담화하고 돌아간일이 없었다  
 그후 북한정부를 부처공식적으로 초대장어 몇장 왕헌의  
 레하이엔 황성복, 리훈익, 박영빈, 장철, 리세호 등 5명  
 이 그 초대장을 받았다. 그후 이 5명은 북한에 초청받  
 아 가게 되었다. 가고 오고 - 왕복 여비와, 북한 체류기  
 간 비용은 전부가 북한 정부가 전담하였다. 북한에 도착한  
 5명 인사들을 김일성 수상은 평양에서 만나지 않고  
 청진에서 만나게 되었더라 동행자중 장철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김일성 수상은 말하기를 - 참 나는 어  
 이들이 소련에 돌아가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 라고  
 하면서 - 자 그동안 몸이나 얼마나 변종이 되었는가  
 보라고 하면서 허리 등등을 맞추끌어 안아보았다 -  
 고하였다. 그후 김일성 수상의 명령에 따라 군사간  
 부들은 군사청소 일급식 더 놀며 죽고 박영빈 선생에  
 게는 보건용 자전기 설비를 선물하였다. 이상 5명은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북한에서 약 일개월씩 휴식  
 도 하였다. 그후 이상 5명은 동북인하여서로 북측 초  
 청을 받아 평양에 가서 휴식하고 취급도 받았다. 그  
 러나 1997년 북측 시작하여 북한에 초청하는 번수가  
 전혀 적어졌으며, 이상 5명 중에서 4분이 도라가  
 시고 다만 황성복 한분만 현지에 계신다.

박영빈 선생의 북인 남미리아 여사는 1996년  
 에 도라가시고, 박영빈 선생을 항상 돌보아주고  
 감사주시던 북인이 먼저 도라가신후 아주 작중하  
 게 고립하면서 지내었다.



박영민 선생과 장철 선생은 사립에서 보리바와  
 같이 12년 같이 박영민이 국제 경제 시찰해 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산권 조국의 신록한 농일  
 을 염원하시면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었다.  
 박영민 선생과 장철 선생은 또 그들이 사택이 없  
 동하게로 후유권은 시찰 제리구 제 1반에 거주한  
 있었다.

때문에 빨리 찾아갈 필요도 없이 하루종일 서로 만나  
 나시지 못하면 큰 사고나 생긴것처럼 서로 전화로 결  
 어 찾곤 하였다. 그렇게 한집 식구처럼 다정히 지  
 내시던것이, 안병이란 아주 중증된 병중 범위에서 살  
 고 있기 때문에, 연노한분은 이세상을 떠나기 마련이거  
 어린 세미은 새로 자라기 마련이어서, 장철 선생은 1996  
 년에 도라가시고, 박영빈 선생은 1998년 5월 17일  
 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박영빈 선생은 자기 생활  
 의 막어막 순간까지 착남 철두 철미 같이 계시면서  
 손자 2명을 낳았으므로 어록만치면서 즐겁음서란을  
 밟이시었다.

1998. 11. 4. 다뉴권촌에서 장철영